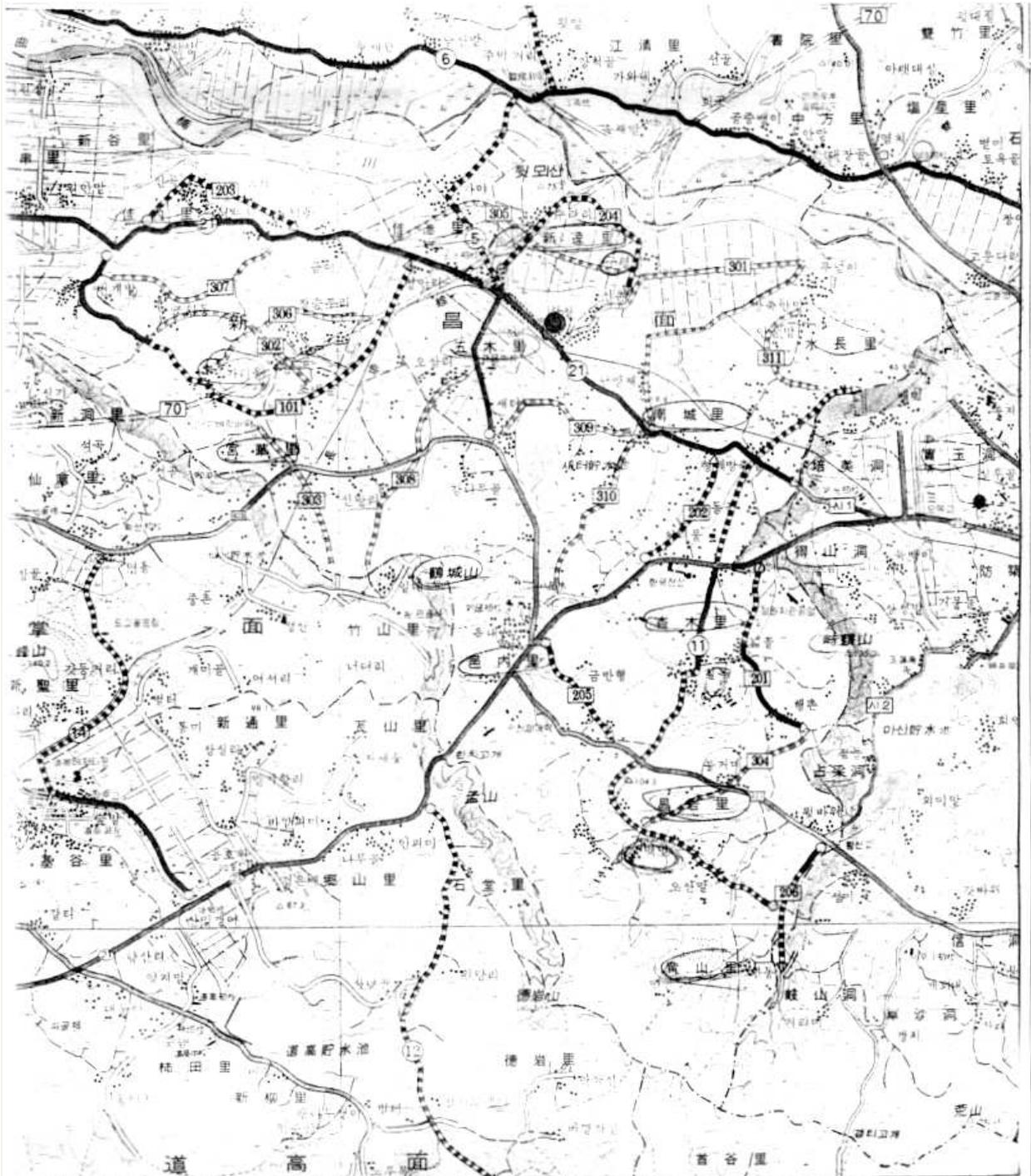


\* 마을사 \*

# 신창면 (新昌面)



신창면은 12개 법정리·27개 행정리·52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 [ ] 신창면 개항

본래 신창군 군내명의 지역으로서, 북동, 남산, 홍문, 금반형, 유기, 교촌, 신대의 7개리를 관할하다가, 1914년 군면 폐합에 따라 대동면의 장구포, 수여, 수남, 구평, 마산, 웅산, 잉동, 보옥, 득박, 상

점량, 증점량, 하점량, 창적, 부거산, 칠목, 행촌, 오산, 내황동, 외황동의 20개리와 소동면의 조원, 원내, 가리, 용곡, 기곡, 가야, 거산, 덕동, 화산, 궁동, 신당, 신성, 남방, 방축, 신촌, 화달, 수여, 조내, 신교, 오삼, 시목, 정안의 22개리와 대서면의 원내리와 소서면의 화달리와 북면의 신리, 기곡리의 2개리와 아산군 삼서면의 형제, 수달의 2개리와 대동면의 방축리와 온양군 서면의 보옥동을 병합하여 이곳에 있는 화성산의 이름을 따서 화성면이라 하여 아산군 편입되어 가내, 가덕, 궁화, 남성, 득산, 수장, 신곡, 신달, 보옥, 오목, 읍내, 점량, 창암, 행목, 황산의 15개리로 개편 관할하였는데 1917년에 오목리가 충남선의 역으로서 급히 발전됨에 따라 면사무소를 읍내리에서 읍기는 동시에 면 이름을 신창면으로 고치고 1986년 온양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득산, 점량, 실옥리를 온양시에 넘겨주고 현재 오목, 읍내, 창암, 황산, 행목, 수장, 신달, 남성, 궁화, 가덕, 신곡, 가내의 12개리를 관할하며, 동쪽은 온양시, 남쪽은 온양시와 송악면 도고면, 서쪽은 도고면과 선장면, 북쪽은 인주면과 염티읍에 닿는다. 도고면의 인구는 총 11,230명이고, 세대는 3,545세대가 산다. 그리고 신창면의 면적은 39.85km<sup>2</sup>이다. 신창면의 토지 지목별 현황을 보면 전 7,524,667m<sup>2</sup>, 답 12,733,969m<sup>2</sup>, 과수원 802,179m<sup>2</sup>, 목장용지 61,657m<sup>2</sup>, 임야는 11,548,925m<sup>2</sup>이다.

신창면의 가축사육 가구를 보면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는 총 261가구로 한우는 133가구, 젓소 48가구, 돼지 52가구, 사슴 18가구이다.

신창면의 금융기관 현황을 통화금융기관과 비통화 금융기관으로 나뉜다. 신창면의 금융기관은 총 6개인데 이중에서 통화금융기관내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기관으로 농협 2개, 비통화 금융기관내에는 새마을금고 2개, 체신예금 2개가 있다.

신창면의 의료기관은 2개소가 있는데 보건소 1개와 보건지소 1개가 있다. 신창면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를 보면 사업체수의 합계는 404개, 종업원수의 총계는 3,448명이며, 이중에서 농림수렵업의 사업체수는 1개, 종사자수는 12명, 제조업의 사업체수는 62개 종사자수는 2,175명, 건설업의 사업체수는 3개, 종사자수는 14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의 사업체수는 78개, 종사자수는 180명, 숙박 및 음식점업의 사업체수는 126개, 종업원수는 250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사업체수는 20개, 종사자수는 43명, 금융·보험업의 사업체수는 6개, 종사자수 66명, 부동산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의 사업체수는 8개, 종사자수는 11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사업체수는 3개, 종사자수는 38명, 교육 서비스업 기업체수는 15명, 종사자수는 490명,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사업체는 77개, 종사자수는 95명이다.

신창면의 사회복지시설로는 아동복지시설 3개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이 1개가 있고 노인복지시설은 전무한 상태이다. 신창면의 문화재 현황을 보면 문화재는 도지정 문화재로 5점이 있다. 도지정 문화재 자료 제 225호로 아산군 신창면 읍내리에 소재 신창향교, 문화재 자료 제 235호 신창면 읍내리 소재 인취사 석탑, 문화재 자료 제 236호 신창면 읍내리 소재 신창 척화비, 문화재 자료 제 237호 신창면 읍내리 소재 김육비, 문화재 자료 제 244호 신창면 읍내리 소재 신창학성이 있다.

예전에 신창현에 있던 공북정은 비록 그 건물(建物)이 없어지고 유지(遺址)나마 알 수 없게 되었으며, 오직 그 정자(亭子)의 정경(情景)을 그려 놓은 서거정(徐居正)의 형기(亭記)가 남아 있으므로 아래에 적어 둔다.

서거정의 기문(記文)에 "무송(茂松) 윤상국(尹相國), 윤자운(尹子雲)이 거정에게 말하기를 신창태수(新昌太守) 조 이가 새 정자를 짓고 공북이라 편액(扁額)하고는 그 기문을 요구(要求)해 왔으니 그대의 말이 있기를 바란다." 하였다.

내 추억(追憶)하건대 병자년(丙子年) 여름에 서원의 공성(公城)으로부터 이른바 신창(新昌)이란 땅으로 길을 들어 지나는데 나의 동년(同年)인 태수 김표(金標)이 길로 나와서 나를 맞아 주었다. 때는 바야흐로 혹열(酷熱)이었는데 잠깐 나무 그늘에 앉아 술잔을 나누면서 이내 그 고을의 대략(大略) 형편(形便)을 물었더니 김이 말하기를 "이 고을이 지역이 좁고 백성도 적으며 토질이 박(薄)하고 산물(産物)이 적은데다가 아전(衙前)들은 간사(奸邪) 완만(頑慢)하고 백성(百姓) 역시(亦是) 시끄럽고 또 송사(訟事)를 좋아하는데 반하여 나는 서리고 얼킨 것을 다스리어 부석(副析) 분별(分別)할 만한 재간(才幹)이 없어 다만 요동(搖動)하지 않도록 할 따름이요, 너그럽게 대할 따름이다." 하였다. 나는 말하기를 "옛 사람이 이르기를 '작은 고을을 다스리려면 생선(生鮮)을 삶을 때와 같이 하라.' 하였으니 군의 고을 다스리는 방법(方法)이 거의 그 대체(大體)를 얻은 것이다. 군의 뒤를 이어 오는 자로 하여금 군의 마을을 마음으로 하고 군의 정사(政事)를 그대로 실행(實行)한다면 어찌 다스리지 않을 이치(理致)가 있겠는가." 하고 나의 노정(路程)이 급박(急迫)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거기서 고별(告別)하고 가버렸던 것이다. 그 후 몇해 만에 호남지방으로 가는데 또 이 길로 지났더니 태수(太守) 윤호공(尹壕公)이 길에 나와서 나를 맞아주고 술잔을 들었는데 내가 그 고을 다스리는 법을 물었더니 그이 대답(對答)이 나의 동년 김표(金標)와 같았다. 또 나의 갈길이 바쁘고 역방(歷訪)할

겨를을 얻지 못하여 마음속으로 그윽히 괴이(怪異)하게 여기기를 거정이 이 색과는 본래의 곤륜(困緣)이 없어 그런 것인가 했다. 그런데 지난번 에 들이니 조후(趙侯)가 고을을 다스리는데 부지런하고도 민첩(敏捷)하며 간소(簡素)하게 하면서 요령(要領)이 있어 그 명령(命令)을 번다(煩多)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업에 충실(充實)하고 백성들에게 빨리하지 말라 하여도 그들은 즐겨 그 일에 달려와서 관청(官廳)과 정사(情事)가 환연(煥然)하게 일신(一新) 되었다는 것이다.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정사를 사모(思慕)하나 친히 그 읍의 상황(狀況)을 보지 못하였은 즉 김동년(金同年), 윤사문(尹斯文)등과 더불어 일찍이 서로 토론(討論)한 말들이 나의 나의 흉중(胸中)을 왕래(往來)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조 후(趙侯)가 정자(亭子)를 짓고 무송 윤송의 기문의 부탁(付託)이 홀로 나에게 지워지니 이는 전일 나에게 두 차례에 걸친 기망(期望)이 오늘을 기다린 것이다.

감히 즐겨 말하지 않으리요.

나는 생각하기를 누대(屢代)나 정자(亭子)를 세우는 것이란 완상(玩賞)하며 놀기를 일삼으로는 것이 아니요 곧 왕명을 받들고 온 이를 존경(尊敬)하고 빈객(賓客)을 잘 접대(接待)하며 울적한 것을 이 끌어 풀어 버리기 위한 것인데 '공북(供北)'이라 이름한다면 다만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조망(眺望)해 내다보고 여기서 술 마시며 글 씬 사람들로 하여금 멀리 궁궐문(宮闕門)을 바라보고 하늘 아래의 장안(長安:서울)을 가리키며 일찍이 한 그릇의 밥이라 할지라도 임금의 은혜(恩惠)임을 잊지 않게 한다면 춘추(春秋)의 왕실(王室)을 존중(尊重)한 자 있으면 이를 썼고, 백성의 일을 소중히 한 자 있으면 이를 썼던 것이다. 조 후의 이번 일은 공역에 있어 백성을 번거롭게 하지 않았으며 시세(時勢)로 보아서도 과잉(過剩)한 거조(舉措)가 아니었고 왕실을 존중함이 이와 같으니 춘추의 전례(典例)에 있어서도 오히려 대서특서(大書特書)하여 이를 찬미(讚美)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나 같은 사람은 사국(史局)의 문한(文翰)의 책임(責任)을 맡고 있는 터이니 비록 쓰려고 하지 않은 들 어찌 면하겠는가. 그 산천은 읍터의 형승(形勝)에 있어서는 내 일찍이 한번도 목격(目擊)한 일이 없으니 어찌 장황(張皇)하게 늘어 놓으랴. 나의 박전(薄田) 1경(頃: 백마지기)의 평택땅에 있는데 다른 날 혹은 은퇴(隱退)를 원하여 그곳에 돌아가서 휴양(休養)한다면, 마땅히 한 번 그 정자 위에 가서 보고 그 말을 다 하겠노라.

본관이 신창이신 분들을 이곳에 소개하고자 한다.

十 표정준(表廷俊: 이조 ?~?)

이조 인조때 무관, 본관은 신창, 집안이 원래 한술(寒術)하였으나 어려서 무예(武藝)를 배우고, 무과(武科)에 급제(及第), 벼슬을 만시(萬戶), 검사(劍使)를 거쳐 뒤에 현감(縣監)에 이르렀다. 성품이 겸손(謙遜)하고 의를 위해 용감(勇敢)하였으며, 앞서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을 따라 배편으로 경사(京師)에 건너갔고 그때 청음(淸陰)에게 신임(信任)을 받게 되었다. 인조 18년 (1640) 청음이 척화신(斥和臣)으로 청나라에 잡혀 갔다가 의주(義州)에 돌아왔으나 또 적신(賊臣) 이주(李柱)의 간언(諫言)으로 심양(審陽)에 따라가서 시종(侍從)하며 영역(營役)에 복역(服役)하여 당시(當時) 그 의가 높은 평가(評價)되었다. 청음의 조손(祖孫)인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은 그 사적(史蹟)을 써서 후세(後世)에 전하였다.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十 표헌(表憲: 이조?~?)

이조 선조때의 역관(譯官), 본관은 신창, 어전통사(御前通事)로서 명나라 사신을 접견(接見)하고 접연(接宴)할 때 임기응변적(臨機應變的) 통역(通譯)으로서 왕의 곤경(困境)을 모면(謀免)하게 했으며 선조 25년 (1592) 임진왜란(壬辰倭亂)때 의주에 피란(避亂)중인 왕이 명나라에 가려함을 간(諫)하여 그만두게 하였다. 벼슬은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선조실록(先祖實錄), 통문관지(通文館志)>

十 표연말(表沿沫: 이조?~연산군 4년 (1498)

자는 소유(少遊), 호는 남계(藍溪)이며 신창인이다. 성종임진년에 생원(生員), 문과에 급제하고 병우년(丙牛年) 중시(重試)에 급제되어 예문관(藝文館) 검열(檢閱)이 되거 간관(諫官)으로 임사홍의 간사(奸邪)함을 논박(論駁)하다가 사홍의 무고(誣告)로 귀양을 갔다. 연말(沿沫)이 부모상(父母喪)에 꼭 주자가례(珠子家禮)대로 행하자 김종직이 행검(行檢)이 있다고 친(薦)하여 동지 성균관진(成均館進)되었다. 연산(燕山) 무사화(戊牛土禍)에 김종직의 문종(文從)로 형매(刑枚)하여 멀리 귀양가다가 도졸(道卒)하였다. <동유사우록(東儒師友錄)>

十 표정로 (表廷老: 이조 ?~?)

이조 선조때의 역관(譯官), 본관은 신창, 역관헌(譯官憲)의 아들이다. 원접사(遠接使)로 명나라 사신

(使臣)을 맞이하였을 때 문장으로 문답(文答)을 하여 명사(明使)를 크게 놀라게 하였다. 벼슬은 승록지추(崇祿知樞)에 이르렀고 중년에 벼슬이 그의 아버지보다도 높았으므로 부자(父子)와 같이 동청(同廳)에 있을 수 없어 별체아(別遞兒)에 있게 하였으니 당상별체아(堂上別遞兒)는 이때부터 시작(始作) 되었다. <선조실록(先祖實錄),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통문관지(通文館志)>